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26.(목) 배포 2024. 9. 26.(목)

2024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화려한 개막 2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서 개최

-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려 -

“자생식물로 꽃으로 가을을 만나다”

2024년 봉자 페스티벌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막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심상택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봉자페스티벌 개막식을 가졌다.

‘꽃바람으로 물든 봉화 무릉화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6일까지 계속된다.

봉자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위탁재배농가가 생산한 식물 구절초, 추산쑥 부쟁이 등 가을꽃 22종 53만본을 39개 전시원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심상택 이사장은 개막식에서 “봉자페스티벌은 지역농가,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는 뜻깊은 축제”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책임자	실 장	조양수 (044-270-5110)
		담당자	주 임	최재원 (044-270-51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9월 2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한 2024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9월 2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한 2024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에서 네번째)가 매듭 퍼포먼스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3. 9월 2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한 2024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왼쪽에서 두번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에서 네번째)가 매듭 퍼포먼스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